

| 이슈페이퍼 2020-03 |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1. 문제제기
  2. 다자녀 가구 현황
  3.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실태
  4.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연구위원

## ◆◆ 요약 ◆◆

- 전반적인 출생율 저하 현상 속에서 다자녀 가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총 양육비용(가구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모든 양육비용 비목에서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며,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문화생활비 순으로 양육비용 지출액이 큼.
- 가구 당 총 양육비용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함.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다자녀 가구 지원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 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대해서는 식비 지원 및 문화생활비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1

### 문제제기

- 한국의 다자녀 가구 비중은 매해 감소하고 있음(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20. 3. 26 인출).
  - ◆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만혼, 양육부담, 유배우 가구의 후속 출산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음.
  - ◆ 이철희(2012)에 따르면, 1991년 이후 한국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주로 유배우 여성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 2019)」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동 보고서의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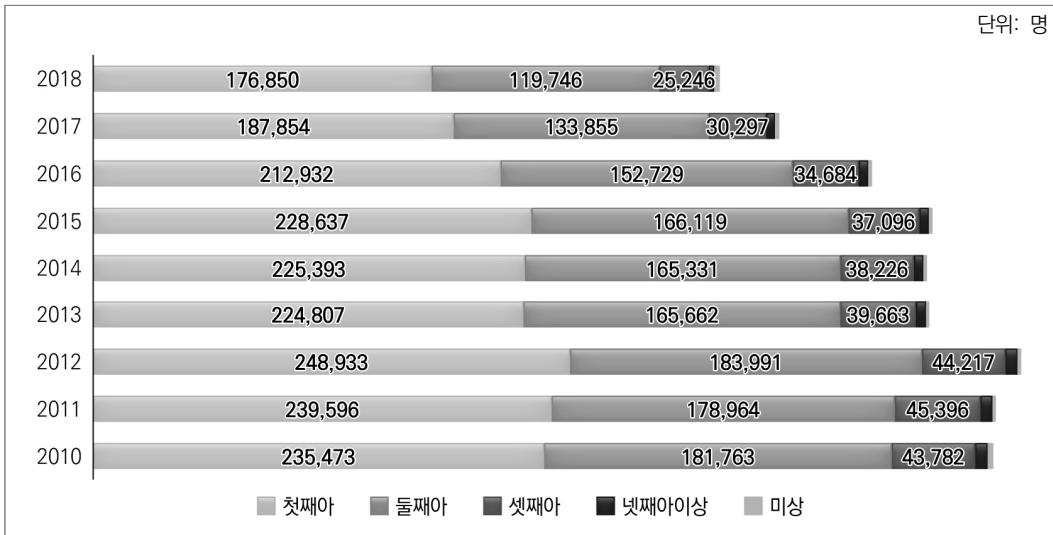
비율 감소에 기인하며,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10년간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일부 저해하는 효과<sup>1)</sup>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이철희, 2018).

-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육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20).
  - ◆ 법령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개별 정책 사업 등에서 다자녀 가구의 분류 기준으로 대체로 3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음.
  - ◆ 기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저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2020. 3. 30 인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아동과 육아 가구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구는 다른 육아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50).
  -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구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어디에서 가중되는지를 살펴보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 본고는 간략하게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 현황을 검토 한 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봄.

1) 합계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이유는 유배우 출산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여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임.

## 2 다자녀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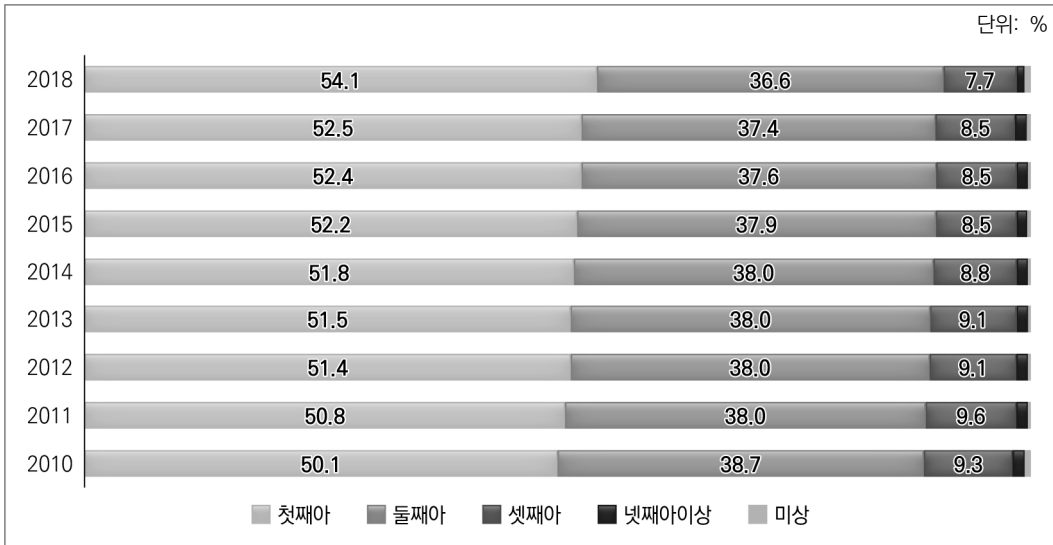
- 다자녀 가구란 현재로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음.
  -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로 할 것인지 3명이상인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음.
  -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자녀 가구 현황 또한 아동 단위로는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 출생아 현황 혹은 가구 영유아 가구 비중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단, 다수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출생아가 소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총 출생아는 326,822명에 그침(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2020. 3. 26 인출).



[그림 1]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는 첫째아가 2010년 ~2018년 모두 절반 이상인 가운데,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수도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임.
- ◆ 2018년 기준 둘째 출생아 수는 119,746명(36.6%)이며, 셋째아는 25,246명(7.7%), 넷째아 이상은 2,918명(0.9%)에 그침.
- ◆ 연도별 전체 출생아를 1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첫째아 비중은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즉,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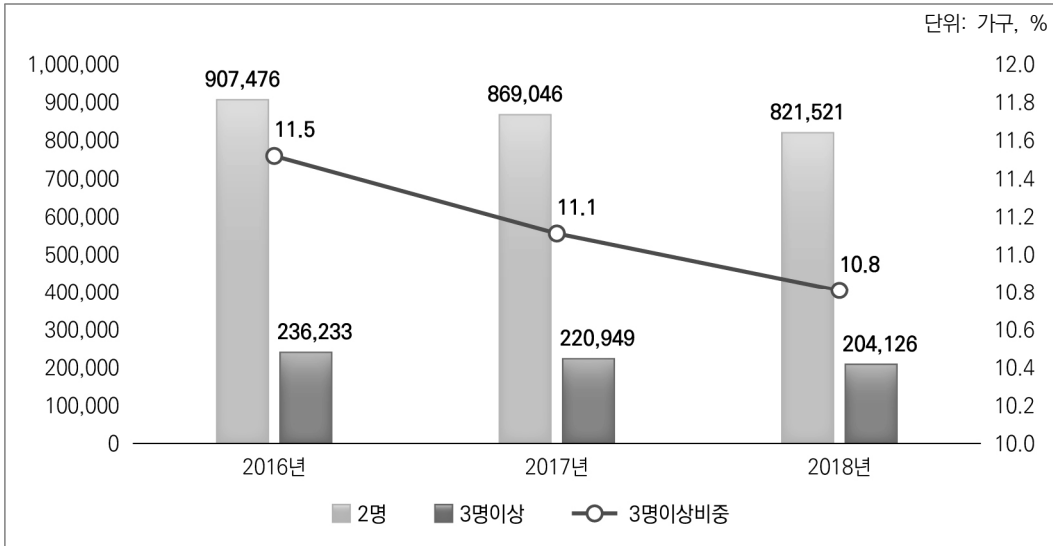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한편,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자녀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884,247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58,600가구로 전체의 45.6%이며, 자녀가 3명인 가구는 204,126가구로 10.8%임.
- ◆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란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로, 가구내 영유아가

1명이상 있는 가구를 의미함.

- ◆ 전체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수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수 및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뿐 아니라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수와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 ◆ 이는 유배우 가구 중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전반적인 출산을 저하는 비단 셋째아 이상의 후속 출산 감소 뿐 아니라 첫째아 출산 자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연도별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자녀수별 현황

주: 영유아 자녀 가구란 만6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 3

##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실태

## 가. 분석 대상 특성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분석을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 분석 자료는 가구용 조사에서 수집한 육아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 자료임.
  - ◆ 주의할 점은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 조사의 응답 대상자는 2012년생(초등 1학년생)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따라서 아동 당 양육 비용 등의 경우, 초등2학년 이상 자녀는 해당 육아 가구 내 다른 자녀(초등1학년생 이하 자녀)로 인해 응답 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일 뿐이며 원표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총 1,902개의 응답 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55가구(13.4%)로 앞서 살펴본 통계청 자료에 비해 약간 더 많은 비중을 보임.
  - ◆ 2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또한 987가구(51.9%)로 통계청 자료에 비해 많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660가구(34.7%)였음.
  - ◆ 양육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분석대상 가구 특성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902 (100.0)	660 (34.7)	987 (51.9)	255 (13.4)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153 (100.0)	78 (51.0)	61 (39.9)	14 ( 9.2)
	300~399만원이하	510 (100.0)	188 (36.9)	261 (51.2)	61 (12.0)
	400~499만원이하	485 (100.0)	153 (31.6)	251 (51.8)	81 (16.7)
	500~599만원이하	347 (100.0)	112 (32.3)	200 (57.6)	35 (10.1)
	600만원이상	407( 100.0)	129 (31.7)	214 (52.6)	64 (15.7)
월평균 가구소득	498.7	483.2	503.1	522.1	



## 나.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

- 다자녀 가구의 총 양육비용(가구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됨.
  - ◆ 다자녀 가구의 가구 월평균 생활비 총 지출액은 전체 평균 332만6천원이며,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377만5천원으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생활비 지출액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총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일 때는 86만6천원에 그쳤으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184만9천원으로 자녀가 1명일 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 생활비에서 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9%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7.6%였으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48.4%까지 증가하여, 전체 생활비의 절반 가량이 자녀 양육을 위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또한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 즉,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양육비용 총액 뿐 아니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면서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다자녀 가구 총양육비용 및 비중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평균 가구소득	총 양육비용	생활비 대비 총양육비용 비중	가구소득 대비 총양육비용 비중
전체 평균	332.6	498.7	126.5	36.9	28.2
총 자녀수	1명	483.2	86.6	27.6	19.5
	2명	503.1	138.2	40.2	31.1
	3명이상	522.1	184.9	48.4	39.7
	F	37.9***	1.79	245.0***	468.4***
사례수	(1,902)	(1,902)	(1,902)	(1,902)	(1,902)

\*\*\*  $p < .001$ .

- 다자녀 가구 양육비용은 주요 비목별로 자녀수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된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월평균 44만1천원이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9만5천원이었으나 3명이상인 경우에는 66만7천원에 달함.

- ◆ 다음으로 식비에 대한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월평균 26만7천원이었으며,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41만9천원인 것으로 분석됨.
- ◆ 이외에도 여가 및 문화생활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 심지어 자녀를 위한 보험비조차도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3〉 다자녀 가구 비목별 양육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주요 비목별	식비	26.7	16.8	29.4	41.9	255.8***
	피복비	9.8	6.4	11.0	15.2	132.1***
	보건의료비	5.2	3.9	5.7	6.6	22.1***
	교육보육비	44.1	29.5	48.0	66.7	84.4***
	여가 및 문화생활비	18.4	14.3	20.0	22.5	20.4***
	개인유지비	5.5	4.4	5.8	7.2	28.4***
	자녀를 위한 보험비	11.6	6.8	13.2	18.1	140.6***

\*\*\*  $p < .001$ .

- 양육비용 지출에는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비목별 양육비용을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 자녀가 3명이상인 육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은 월평균 66만7천원인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2만9천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98만5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 자녀수가 동일한 육아가구 내에서도 가구소득이 많아지면 교육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은 발견됨. 즉,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보육비 지출을 증가시킴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암시함.

〈표 4〉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교육보육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가구 소득	전체	44.1	29.5	48.0	66.7
	299만원이하	26.2	13.7	38.2	42.9
	300~399만원이하	29.1	17.9	33.1	46.9
	400~499만원이하	39.7	27.8	43.5	50.6
	500~599만원이하	51.9	37.2	53.5	90.1
	600만원이상	68.1	51.4	69.2	98.5
	F	66.30***	21.88***	27.65***	20.15***

\*\*\*  $p < .001$ .

- 한편, 식비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와는 달리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양육비용 중 식비는 월평균 41만9천원이었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29만8천원에 그친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49만5천원까지 식비로 인한 양육비용이 증가함.
  - ◆ 반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월평균 16만8천원을 자녀 양육을 위해 식비 지출을 하고 있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 식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 즉, 양육비용 중 식비는 가구소득보다는 자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비목임을 암시함. 또한,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도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 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교육보육비용에 비해 적음. 결과적으로 식비는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비목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음.

〈표 5〉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식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가구 소득	전체	26.7	16.8	29.4	41.9
	299만원이하	20.1	15.1	24.5	29.8
	300~399만원이하	24.0	15.4	27.3	36.0
	400~499만원이하	27.8	17.7	29.5	42.0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500~599만원이하	27.5	13.5	16.7	20.5
600만원이상	30.4	17.8	32.3	49.5
F	13.22***	2.16	4.02**	4.02**

\*\*  $p < .01$ , \*\*\*  $p < .001$ .

-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양육비용 중 여가문화생활비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치 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표 6〉 자녀수별 가구소득수준별 양육비용(여가문화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전체	18.4	14.3	20.0	22.5
299만원이하	11.6	9.6	14.4	10.3
300~399만원이하	14.1	11.3	14.6	20.3
400~499만원이하	18.0	15.5	19.5	18.6
500~599만원이하	19.5	14.4	21.4	24.9
600만원이상	25.8	20.2	27.7	30.9
F	23.20***	4.91***	14.34***	3.89**

\*\*  $p < .01$ , \*\*\*  $p < .001$ .

#### 다. 다자녀 가구 아동 당 양육비용

- 이 항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 당 양육비용에 대해 살펴봄.
- ◆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조사 자료에서 가구 내 모든 자녀에 대해 조사한 자녀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 ◆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자녀별 양육비용을 각기 조사하였으므로, 동일 가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별로 지출되는 양육비용이 상이함.
-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표본이 초등1학년(2012년생)까지이며, 초등2학년

이상의 자녀는 직접적인 조사 표본 대상이 아닌 원가구 내 자녀에 대한 비용 조사의 결과이므로 표본의 수가 급감함에 주의가 요구됨.

- 아동 당 양육비용은 월평균 67만1천원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 82만2천원에 달하지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56만1천원으로 감소함.
  - ◆ 가구 당 총 양육비용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아동 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개인별로는 투입되는 양육비용의 총량이 적음을 의미함.
  - ◆ 결과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음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아동별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자본 투자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목별로는 가구 당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아동 당 양육비용도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액이 많음.
  - ◆ 한편 모든 비목에서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 뿐 아니라 필수재적 성격을 가진 식비에서조차도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적음.
  - ◆ 예를 들어, 식비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아동의 경우 월평균 16만8천원을 지출 하였으나, 자녀가 3명이상 가구에 속한 아동의 경우에는 월평균 13만2천원을 지출 하는 것에 그침.

〈표 7〉 다자녀 가구 비목별 아동 당 양육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전체	67.1	82.2	66.6	56.1	87.86***	
주요 비목별	식비	14.7	16.8	14.7	13.2	28.29***
	피복비	5.5	6.4	5.5	4.8	23.79***
	보건의료비	2.9	3.9	2.9	2.1	38.68***
	교육보육비	24.4	29.5	24.0	21.0	18.29***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여가 및 문화생활비	10.2	14.3	10.0	7.1	59.31***
개인유지비	3.0	4.4	2.9	2.3	71.94***
자녀를 위한 보험비	6.4	6.8	6.6	5.7	10.04***

\*\*\*  $p < .001$ .

- 한편,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이 만6세 자녀의 양육비용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초등1학년이하 자녀의 표본에는 자녀가 1명인 가구가 포함되는데 반해 초등2학년 이상 자녀의 표본은 모두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 이러한 표본 특성을 감안할 때 아동 연령별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동일한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양육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당 양육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신생아 표본과 중고등 학생 표본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원표본으로 직접적 양육비용 조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자녀의 아동 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신생아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 당 투입 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됨.
  - ◆ 또한, 자녀수에 따른 아동 당 양육비용 차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임.
  - ◆ 신생아 표본(2019년생)의 경우에는 가구 내 자녀수에 따른 아동 당 양육비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애 초기 아동에게 소요되는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함으로 엿볼 수 있음. 즉, 신생아의 경우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위주의 양육비용 소요로 인해 자녀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 반대로 중고등 학생 이상 자녀의 아동 당 양육비용 또한 자녀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분석 대상 표본이 모두 가구 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표 8〉 아동연령별 아동 당 양육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전체		(3,444)	67.1	82.2	66.6	56.1	87.86***
아동 연령별	2019년생(0세)	( 161)	48.1	52.5	45.8	48.0	0.64
	2018년생(1세)	( 298)	51.7	64.8	48.2	35.8	11.55***
	2017년생(2세)	( 297)	56.1	67.9	51.7	48.0	9.16***
	2016년생(3세)	( 338)	57.4	67.2	56.9	48.3	4.87**
	2015년생(4세)	( 409)	65.9	83.5	64.8	48.7	20.08***
	2014년생(5세)	( 405)	70.0	96.6	66.7	57.0	29.13***
	2013년생(6세)	( 426)	80.6	106.9	76.6	61.1	24.90***
	2010년생~2012년생 (초등1~3학년)	( 786)	76.3	99.7	78.2	59.5	50.28***
	2007년생~2009년생 (초등4~6학년)	( 203)	69.8	-	80.2	61.6	15.30***
	2001년생~2006년생 (중고등 학생)	( 100)	73.7	-	80.2	70.7	1.40

\*\*  $p < .01$ , \*\*\*  $p < .001$ .

## 4 정책적 시사점

- 육아가구의 양육비용은 자녀수에 따라 점증하는 형태를 갖지만, 다자녀 가구의 아동 당 양육비용은 자녀수에 따라 점감하는 경향을 보임.
  - ◆ 이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들이 생애 초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받게 됨을 시사함.
  - ◆ 현행 육아 지원 중 대표적 사업인 비용 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 등)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아동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 ◆ 즉,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 연령을 넘어가는 자녀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비용 부담이 가구로 고스란히 귀결되게 됨.
  - ◆ 예컨대, 만10세/ 6세/ 3세 자녀가 있는 3자녀 육아가구와 만6세/ 3세 자녀가 있는

2자녀 육아가구의 아동수당 수령액은 월 20만원으로 동일함. 이때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3자녀 육아가구의 양육부담이 훨씬 가중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금성 비용 지원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의 강화가 요구됨.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며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유아교육 체계이므로,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 ◆ 가정양육수당은 제도의 태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대체적 성격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될 필요성이 있음.
- ◆ 결과적으로 현행 비용지원 정책 중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아동수당 지원제도로 볼 수 있음.
- ◆ 아동수당 지원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높음.

■ 양육비용의 비목별로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액이 큼.

- ◆ 무상보육·유아교육 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보육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결국 돌봄취약계층(맞벌이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한편,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식비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음.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육아가구에 비해 아동 당 식비 지출액이 낮기 때문임.
- ◆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아동별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의 순위 자녀에 대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I 참고 문헌 I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이철희(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로드맵.

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betterfuture.go.kr](http://www.betterfuture.go.kr)(2020. 3. 30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2020. 3. 26 인출).